

# 강진군, 봄맞이 ‘반값여행’ 지원으로 체류형 관광 선도

李 대통령 5번 극찬 ‘상생 모델’  
여행비 50% 최대 20만원 환급  
봄꽃·불금불과 축제 등 매력 가득



강진군이 여행비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반값여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전라병영성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 <강진군제공>

파격적인 여행비 환급 혜택과 다채로운 봄맞이 이색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비가 되고 있다.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고스란히 스며드는 완벽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비롯해 국무회의 등 주요 공식 석상에서만 다섯번이나 강진의 반값여행을 꼭 짊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행비 부담은 덜고 지역 상권은 살리는 모범 정책”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벤치마킹

사례로 확고한 정신호를 졌다. 이러한 파격 혜택에 더해 올봄 강진에는 이른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감성 데이트 코스 상춘객을 유혹한다. 매년 4월 중순 무렵 분홍빛 장관을 연출하는

남미르사 서부해당화 길은 봄의 정취를 선사하며, 대구면에 자리한 분홍나루는 강과 하늘이 붉게 물드는 황홀한 노을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뷰 맛집이다. 아울러 군동면의 옛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

로 재생한 ‘백금포 문화공간1933’에서는 강진오솔길 등을 주제로 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져 연인들에게 색다른 시각적 힐링을 제공한다. 역사와 먹거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조선 병영 일대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거점이다.

조선시대 전라병영의 웅장함을 품은 병영성과 옛 정취가 가득한 한골목길의 낮은 돌담은 고즈넉한 산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곳에서 맛보는 연탄불향 가득한 병영불고기는 여행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린다. 여기에 오는 4월3일부터 6월2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축제는 아간 체류형 관광의 분위기를 살린다. 또한 아쿠스틱 공연과 특별 초청 가수 무대, 하멜 감성 텐트촌 등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가족과 연인 모두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혜택은 포털사이트에서 ‘강진반값’을 검색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누릴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반값여행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강진을 한번 오면 반드시 다시 찾는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 도시로 굳건히 각인시키겠다”며 “풍성한 볼거리와 파격적인 혜택이 쏟아지는 강진에서 올 봄 맞이 못할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해남군 “수산물 물류 허브로 비약”

19개 핵심 사업 106억원 투입  
송호리 유통물류센터 연말 준공  
저온저장·가공 인프라 대폭 확충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19개 핵심사업에 총 106억원을 집중 투자해 단순 생산 중심의 어업 구조를 유통과 가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송지면 송호리에 들어서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다. 총사업비 29억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는 부지 7천669㎡, 연면적 1천338.58㎡ 규모로 건립되며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최신식 냉동·냉장 시설과 대형 수조를 완비해 활전복 등의 수집부터 보관, 판매, 분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물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며, 유통 단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수산물을 직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출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군은 총 29억원을 투입해 대형 저온저장시설 2개소와 중형 1개소 등 총 3개소의 저장망을 새롭게 구축해 어가들의 보관 편의를 극대화한다.

이밖에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에 3억6천만원,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17억원을 각각 투입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기반을 닦는다. 가공된 수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도록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적극 지원하고, 소포장재 디자인 개선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을 병행해 해남 수산물의 전국적인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인프라 확충을 든든한 디딤돌 삼아 해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영광 물무산 맨발항톳길 개장

2km 코스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

영광군이 전국구 자연 치유 명소로 자리매김한 ‘물무산 행복숲 맨발항톳길’을 개장한다. 31일 영광군에 따르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모량면 덕흥리에 자리한 ‘물무산 항톳길’을 본격 운영한다. “3대가 함께 걷고 즐기는 숲”을 테마로 조성된 이 길은 총연장 2.0km 규모로 자랑한다. 특히 황토 고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온기를 맨발로 만끽할 수 있는 0.6km의 질퍽구간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걷기 좋은 1.4km의 마른구간으로 나눠 방문객 취향에 맞춘 힐링 체험을 제공한다. 군은 완벽한 손님맞이를 위해 노면 정비와 시설물 점검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개장 이후에도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꼼꼼한 관리와 시설 보안을 마중물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맨발 걷기 성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함평군, 부모·아기 힐링 ‘오감놀이터’ 운영

내달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6-20개월 대상 20가정 모집



함평군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오감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보건소는 전일부터 오는 5월18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베이비 오감놀이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후 6개월부터 20개월 사이의 유아를 둔 관내 20가정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된다. 유아의 오감을 다채롭게 자극해 두뇌와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애

##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에 ‘XR 체험장’ 개장

오늘부터 3개월간 무인 운영



나주시는 31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 지역 대표 명소와 첨단 가상융합(XR) 기술을 결합한 체험 공간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에서 ‘나주관광10선 XR 게임 체험장’을 운영한다. <사진> 이번 체험장은 금성관, 영산강정원 등 나주관광10선을 배경으로 한 모션 인식 게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방문객들은 별도 장비 없이 몸을 움직이며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끽할 수 있으며, 시 대표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부스를 운영, 게임 랭킹 달성 시 현장에서 즉석 사진 인화 혜택 체험할 수 있다. /함평=기영규 기자

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주 인력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기기 이상 시 관내 기업이 즉각 조치하는 촘촘한 실시간 원격 대응까지 완벽히 구축했다. 강동원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체험장은 첨단 가상융합 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김산 무안군수 3선 도전 “대한민국 서남권 중심 도약”

김산 무안군수가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3선 도전에 나섰다. 이날 김산 군수는 “무안을 전남의 수도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맞춰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을 향한 무안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3선 도전에 나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군수는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의 미래와 군민의 안전,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와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전남의 수도 무안을 넘어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을 향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민선8기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성장기반을 다져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민생회복 지

6·3地選 출마 선언...예비후보 등록 지역경제·농업·첨단 산업 도시 발판 군 공항 이전 매듭·주청사 남악 사수 기본소득 도입 등 ‘7대 미래비전’ 제시 흑색선전·비방 등 법적 대응도 불사 원금과 무안사랑 상품권 발행,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썼으며, 농업 분야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과 연계해 스마트 팜, 농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해 농업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RE100 기반 국가산단 추진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무안이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비전을 제시했다.



김산 무안군수가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무안군수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복지와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돌봄·보건·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로, 교통망을 개선해 군민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김 군수는 무안 발전을 위한 ▲군민과 함께 군 공항 이전협의 추진 ▲전남광주특별자치청사 무안 남악 사수 ▲무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 ▲첨단 농업·미래 산업 공존 산업도시 ▲미래 K-

푸드 선도 도시 육성 ▲재난·생활·교통안전 3중 안전망 구축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등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군공한 이전협의 과정에서 환경, 소음, 안전, 재산권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군민동의를 우선하고 군 3대 요구조건을 잘 이행해 무안군 미래 100년을 책임 질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따른 주청사 문제에 대해 “주청사는 현재의 무안 남악”을 사수해야 한다”며 “무안군민들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군수는 “간절한 비판과 정책 검증은 환영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적 비방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시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소·고발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과 무안군정을 지키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산 군수는 “지난 8년간의 경험과 검증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오직 군민, 무안의 미래를 위해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안=김상호 기자